<제7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동양철학에서 악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1. 노자『도덕경(道德經)』에서 악(惡)의 뜻

노자는 '**악**'을 '인위적(人爲的) 강제로 말미암아 도(道)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 파괴되는 것', 또는 한마디로 말해, '하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천지소오, **天之所惡**)'으로 보았다. **도(道)**는 모든 것이 저마다의 자연성을 따라 변화해 가는 '길'을 말한다. 이 '**저마다의 길**'은 그것이 인위적 강제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한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성(聖)스러운 길'이다. '저마다의 길'은 생겨난 모든 것이 저절로 걷게 되는 길로서 저마다가 그 자신의 본성이나 본질 또는 '본디 모습'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러한 '**제-길**'이 사람의 인위적 활동에 의해 막히거나 끊기거나 무너지면 본성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 길은 마치 밑씨가 자라 씨앗이 되고, 씨앗이 자라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길, 말하자면, 생명의 '**한살이-길**'과 같다. **악**은 저마다에게 주어진 '제-길'을 인위적으로, 바꿔 말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부러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 따라야 하는 것', 또는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닦인 것', '사람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나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닐 때(오고갈 때) 지나다니는 것' 등을 뜻한다. 길은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에 머물러 살 곳은 아니다.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지나치는 곳이다. 길은 집이 아니다. **집**은 살기 위한 도구로서 살림살이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 사람이나 동물은 쉬거나 잠을 자거나 자신의 할 일을 한다. 들판이나 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길은 집으로 돌아갈 흔적의 사슬과 같다. 야생의 밀림에서 사람들은 저마다가 기억하는 한스의 조약돌을 따라 삶의 움직임을 펼쳐나간다. 만일 그들에게 돌아올 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길은 사람이 한 곳에 머무르거나 어느 곳으로 거듭 되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사람이 그 머무르던 곳을 떠나면 이미 닦여 있던 길은 흔적으로만 남거나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그의 떠남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생겨날 것이다. 사람은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인류의 이동 경로는 그들이 삶의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떠났던 용기의 역사이기도 하다. **길**은 **머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길이 생김으로써 머물 수 있는 자리는 끝없이 넓혀진다(확장)**. 길은 '머무름의 안정성과 불안을 한데 엮는 장치'일 뿐 아니라, 거꾸로 '멂의 불안과 필요성을 끌어들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람은 머물 곳이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지만, 삶이 정체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거듭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깥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열린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넘나들이**'는 안팎을 모두 풍요롭고 썩지 않게 만든다. 길은 이러한 나와 너 또는 우리와 너

희가 서로 넘나들면서 생겨나는 교류의 장이다. 길은 이제 단순히 지나다니는 곳만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하는 '미디어'가 된다. 길은 삶의 미디어로서 소식도 나르지만 물류도 나르고 문화도 나른다.

길은 사람이 스스로 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길을 처음으로 낼 때 그는 그 만들어질 길이 이어줄 목적지를 먼저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가 막연할 때 길은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길은 **목적지**, 즉 사람이 찾아 가고자 하는 곳이 뚜렷이 드러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길이 막히면 한이 쌓인다. 한의 쌓임은 소통의 부재를 상징한다. 길은 현실에서 실제로도 무너지거나 끊길 수 있다.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뿐 아니라 다리붕괴 등의 인재를 통해서도 길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반대로 길은 새롭게 닦일 수도 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저절로 생긴 자연의 길이든 누군가의 설계를 통한 닦기든 새 길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진 길은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길은 고쳐지거나 버려지기도 한다. 길의 운명은 사람들의 삶에 의존해 있지만, 사람의 운명은 거꾸로 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모든 것의 '**제-길**'은 저마다가 그 자신의 한살이를 온전히 끝마칠 수 있도록 저마다에게 마치 밑씨처럼 주어진 길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어른으로 자라나는 까닭은 그 아이의 '한살이-길'이 그러한 자람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온전한 한살이의 밑그림과 같은 '제-길'은 모든 것이 저절로 따르게 되는 길이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그 자신의 본모습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다. 모든 것이 '제-길'을 갈 수 있으려면, 그 길들이 서로 뒤엉켜 막히거나 뒤섞여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늘의 그물**(천망, **天網**)'이다. 노자는『도덕경(道德經)』제73장에서 하늘의 노릇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늘의 길은
다투지 않지만 잘 이기는 길이고
말하지 않지만 잘 따르는 길이고
부르지 않지만 저절로 오는 길이고
느슨한 듯 하지만 잘 꾸려나가는 길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게 없다.[1]

하늘이 쳐 놓은 그물은 모든 것이 저마다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를 살피고 돕는 것이다. 하늘그물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계(生態系)로서 저마다가 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수(分數)를 조정해 준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가야 할 길, 즉 **하늘의 길**(천지도, **天之道**)이다. 하늘은 모든 것이 '제-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미워한다. **하늘의 미워하는 바**(천지소오, **天之所惡**)는 누군가 저 혼자 이기려 남들과 다투는 것이고, 남들을 부리려 위협하고 강제하는 것이며, 남들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1 노자(老子) 지음, 『도덕경(道德經)』, 제73장: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繟然而善謀 天網恢恢 疎而不失." 앞으로는 "(노자, 제0장)"으로 적음.

사람들을 빠져나갈 수 없는 법체계와 같은 것으로 옭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남의 것을 훔쳐 제 것인 양 여기는 도둑질과 같다. 세계는 하늘의 미워할 바로 말미암아 '하늘의 길'에서 멀어진다. 그로써 모든 길이 스러져 간다.

하늘의 길이 점점 닫히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이 저마다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질 때 **세상은 자연에서 더욱 멀어진다**. 모든 것이 저마다의 본성을 저절로 이루어갈 길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억압(抑壓)과 강제(强制)**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과 자본주의는 세계 속의 모든 것을 변형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앙 그리고 갖가지 사회적 문제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때의 행동이 '끊임없는 자연에 대한 간섭'을 뜻한다면, 자연재앙은 도리어 더 깊어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서로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라리 자연 자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

악은 자연 상태에는 없다. 악은 '저마다의 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쪽저쪽으로 구부리려는 **의지(意志)**로부터 비롯된다. 의지가 비록 자연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까닭은 사람이 그 의지로써 제몫(사, 私)을 늘리려 할 뿐 아니라 그 '할-바(욕, 欲)'를 더욱 키워나가기 때문이다.[2] 이를 위해 사람들은 잔꾀를 부리고, 이익을 쫓으며, 도둑질을 일삼는다. 의지는 사람이 스스로의 앞선 바람과 뜻을 잘 이루려는 마음을 다져먹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높은 자리는 좋아하고 낮은 자리를 싫어하며, 부유함은 좋아하고 가난함은 싫어한다. 사람들의 모두살이에는 이러한 '좋아함과 싫어함'의 '**값-매김-눈**'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들은 '보다 나은 것'만을 쫓으려 할 뿐,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멀리하려 한다.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값매김과 선호도(選好度)는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연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다. 자연 세계 속에 놓인 모든 것은, 그것들이 비록 값의 높낮이로써 짜여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 나름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그 짜임새는 **서로 한데 어울려 있음**이다. 어울림은 모임의 한 방식으로서 모이는 것들이 저마다의 울림으로써 서로 섞이거나 하나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앞뒤의 어울림은 앞과 뒤가 서로의 고유성을 잃지 않은 채 한 목소리를 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노자는 자연 속 어울림, 즉 모든 것이 서로 한데 어우러지는 울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사물은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뒤따르며
어떤 것은 덥혀지고, 어떤 것은 식혀지며
어떤 것은 굳세고, 어떤 것은 여리며

---

2 노자, 제19장: 여기에 쓰인 말은 "少私寡欲"이지만, 우리는 이 말에서 "사(私)"와 "욕(欲)"이 악의 유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실리고, 어떤 것은 떨어진다.[3]

이러한 **어울림의 관계**는 상응(相應), 상관(相關), 상대(相對) 등의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하나가 앞서 가면 다른 하나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상응이고, 한 곳이 덥혀지면 다른 곳이 식혀지는 것은 상관이며, 한 나라가 힘이 세지면 다른 나라가 약해진다거나 하나가 붙으면 다른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상대이다. 사람은 '두루 어울려 있는 자연 상태'를 **의지적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질서로 바꿔 놓으려 한다. 만일 뒤따를 것이 억지로 앞서려 하거나, 떨어져야 할 것이 무리하게 붙으려 한다면, 어울림은 깨진다. 이것이 곧 **악(惡)**이다. 모든 사람이 모두를 앞서가려 할 때 세상은 온통 거센 '앞다투기-싸움'에 휘말릴 테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줄곧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앞세우는 다툼에 몰두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의 값'을 매겨 놓고, 언제나 값이 비싼 것만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값매김은 자연의 어울림마저 일종의 **이용(利用) 가능성**으로 탈바꿈시킨다. 사람이 악을 의지하려면, 그는 먼저 자연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자연이 사람의 이익(利益)을 위해 쓰일 수 있으려면, 그것은 쓰임새가 다양해야 한다. 보기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는 집을 짓는 데도 쓰일 수 있지만,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쓸모를 밝혀낸다. 사람이 발견한 자연의 짜임새는 언제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사람은 자연의 질서, 즉 어울림의 짜임새를 제멋대로 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보살핌 아래에 놓인 모든 것을 일러 "**하늘아래(천하, 天下)**"라 부를 수 있다면, 하늘아래는 이러한 어울림이 알맞을 때도 있고, 안 맞거나 어긋맞을 때도 있다. **악(惡)**은 하늘의 길이 스러져 어울림이 일시적으로 깨뜨려진 상태를 뜻한다. 사람이 비록 하늘의 길을 어지럽히거나 '하늘아래'를 움켜잡아 제멋대로 움직이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자는 그 까닭이 '하늘아래'가 신(神)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늘아래(천하, 天下)는 **신의 그릇**(신기, 神器)이다.
가지려 할 수 없다.
갖고자 하는 이는 무너지고,
움켜잡는 이는 놓친다.[4]

하늘아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실리고 심기고 자라고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영원한 그릇**'과 같다. 사람 또한 그 그릇 안에서 태어나고 길러진다. 오늘날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말해지고는 있지만, 신의 그릇으로서의 지구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거꾸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파괴된 자연은 그 복원력이 되살아날 때만 회복될 수 있다. **성인(聖人)**은 제몫을 늘리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의지하

3 노자, 제29장: "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强或羸 或載或隳."

4 노자, 제29장: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

지 않음을 의지한다. 그는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재화를 값지게 여기지 않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며,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로써 성인은 모든 것이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자연, 自然)을 도울 뿐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는 않는다.[5]

하늘아래 모든 것은 성인의 눈에게는 '저절로 그러한 것(자연, 自然)'이다. 다만 사람만은, 그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고 세분할 수 있다. '스스로'가 자신의 움직임의 목적을 그 자신이 정한다는 자율의 뜻을 갖는 한 사람은 기계적 인과율에 따라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을 넘어선다. 사람은 '하늘의 길'과 '제-길' 그리고 '하늘의 그물'과 같은 변화의 원리를 깨달을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따르거나 거스를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 사람의 결단성은 그가 언제나 어떤 선택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끊거나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맺고 끊음의 가능성은 그가 살아가는 자연이라는 그릇 자체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도덕경(道德經)』 제2장에 따를 때 있음과 없음은 [그 비롯됨에서] 서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그 정도에서] 서로 이루어지며, 길과 짧음은 [그 길이에서] 서로 비교되고, 높음과 낮음은 [그 기울기에서] 서로 [반대로] 기울고, 목소리와 말소리는 서로 어우러지며, 앞과 뒤는 [그 자리매김에서] 서로 뒤따른다.[6] 모든 것은 저 홀로 있을 수 없고 다른 것들과 관계함으로써, 달리 말해, 저마다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그 자신'일 수 있다. 하다가 누군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알거나,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여길 줄 안다면, 그것(앎)은 '못난 것(악, 惡)'이고, '착하지 않은 것(불선, 不善)'이다.[7]

악의 뜻하는 바는 그것이 선과 함께 짝을 이루는 자리('사이')에서부터 드러날 때에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선(善)**이라는 낱말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따르다'라는 맥락(脈絡)에서는 착함의 뜻으로 쓰이고, '어떤 것이 그 자체의 본질에 다다라 있다'라는 흐름 줄기에서는 좋음의 뜻으로 쓰이지만, 두 뜻은 뒤엉켜 함께 쓰이는 때가 많다. 『도덕경(道德經)』 제8장에는 착함과 좋음의 뜻을 함께 나타내는 선(善)의 으뜸 상징으로서 **물(수, 水)**이 말해지고 있다. 물은 모든 것을 살리지만,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려]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든다(處衆人之所惡).[8] 착함의 본질은 다투지 않음(부쟁, 不爭)에 있다. 다툼은 본디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선이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한데 어우러지는 데 있다면, 악은 그 반대가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3장의 내용을 미루어볼 때, 악(惡)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높이 받드는 데 있

---

5 노자, 제64장: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6 노자, 제2장: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7 노자, 제2장: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8 노자, 제8장: "[물은 도(道)를 드러낸다.] [**물과 같은 성인(聖人)**의] 머묾은 땅을 좇고, [그의] 마음은 연못을 좇으며, 사귐은 어짊을, 말은 믿음을, 바룸은 다스림을, 하는 일은 능란함을 좇고, 움직임은 때를 좇는다(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이때의 "좇음"은 '좋아함'이자 '따름'이다. 여기서 '선(善)'은 좋음과 착함으로 나뉘지 않은 채로 있다.

고, 백성들을 서로 다투게 하는 데 있으며, 재화(財貨)를 귀하게 만들어 백성을 도둑으로 만드는 데 있고, 욕심거리를 내보여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데 있다.[9] 다스리미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비워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재물을 고루 두루 나누어야 하며, 함부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이 평화의 상태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면, 악은 그 반대로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도덕경(道德經)』 제12장에 따를 때, 이러한 악은 사람이 다섯 가지 빛깔에 눈멀고, 다섯 가지 소리에 귀먹고, 다섯 가지 맛에 입이 어그러지고, 말 타고 벌이는 사냥 놀이에 그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값비싼 재물에 행동이 비뚤어지게 만드는[10] 원인이다. 사람은 자신의 눈코입귀 그리고 제 욕망이 좋아하는 것을 끝없이 뒤쫓아 채우려 하는 까닭에 정작 그 자신이 참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잃고 만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에 불타는 사람은 어떠한 다툼이나 전쟁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로써 모든 조화는 깨지고, 다스리미는 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며, 백성은 그 모진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의 근원은 사람이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그 뿌리(근, 根)를 알지 못하는 데 놓인다. 모든 것이 뿌리로 돌아가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고요는 정지(停止)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저마다가 받은 명(命)에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일컫는다. 모든 것이 변함없이 저마다의 본질을 되찾는다면, 세상에 다툼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 악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함없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로써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우치게 되고, 이에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반하는 것을 포용하지도, 이에 공정(不公正)해지지도 못한다. 결국 재앙이 일어난다.[11]

악은 사람이 모든 것이 저마다의 '저절로 그러한 바(자연, 自然)'를 이루지 못하도록 어떤 인위적 강제를 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말하자면 백성의 이익을 특정 집단이 독차지하거나, 그 처지와 상황이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인의(仁義)의 규범을 강제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둑질을 일삼는 것과 같다. 소나무가 소나무 씨앗에서 절로 자

---

9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반대로 말하고 있다. 노자, 제3장: "현명한 사람을 높이 받들지 말고, 백성을 다투게 하지 말며,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백성들을 도둑으로 만들지 말며, 욕심 낼 만한 것을 내보이지 말고,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不尙賢 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不見可欲 使民心不亂)."

10 노자, 제12장: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11 노자, 제16장: "[모든 것이] 저마다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뿌리로 되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을 일러 부르는 이에게로 돌아감이라 하고, 그 부름에로 돌아감을 일러 한결같음이라 하며,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일러 밝음이라 한다. **한결같음을 알지 못함**은 어긋되이 재앙을 부른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은 받아들임이고, 받아들임 곧 [치우침 없이] 고름(공평)이고, 고름 곧 [모든 것을 한데] 아우르는 자(왕, 王)이고, 아우르는 자 곧 하늘이며, 하늘 곧 길이고, 길 곧 오랜 것이다. [한결같음을 깨달은 사람은] 몸은 죽어도 위태롭지는 않다[편안하다].(各復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라고, 사람이 그 어버이에게서 나 절로 자라듯 모든 것이 저마다의 소질(素質)에 따라 절로 자라날 때 모든 것은 다툼 없는 고요한 세상에서 저마다의 불변하는 본성을 한결같이 되풀이해 나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저마다의 '**저절로 걷게 되는 길**'만을 따를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것들을 부리지 않는 한(무위, 無爲), 악은 발붙일 곳이 없다.

악은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다. 폭력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전쟁**은 땅 자체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전쟁 지역에 흉년이 들게 만든다. 악인은 착한 이와 달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전쟁을 멈추려 하지 않고 더 강해지려 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뽐내고 자랑하며 그 위세를 드높이려 한다.[12] 악당은 전쟁의 승리를 아름답게 여길 뿐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며, 죽은 자들을 상례로써 처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악행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기 마련이고, 악행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는 진시황의 몰락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모래성처럼 머지않아 허물어져 버린다.

전쟁이 아닌 때에도 악은 끊임없이 저질러질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악 가운데 **통치자의 인위(人爲)로부터 비롯되는 악**을 살펴봄으로써 악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노자는 다스리는 집단이 값비싼 옷을 입고, 시퍼런 칼을 차고, 먹고 마시는 것을 싫도록 즐길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3] 그들은 자신들의 도둑질을 법과 제도로써 정당화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통치자들이 저지르는 악을 증명한다. 노자는 이러한 결과의 악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백성의 굶주림은
윗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굶주린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렵게 되는 까닭은
윗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까닭은
윗사람들이 살림을 넉넉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죽음을 가벼이 여긴다.[14]

---

12 노자, 제30장: "착한 이는 결말이 맺어지면 [전쟁을] 그치고 함부로 강하게 대하지 않는다(善者果而已 不敢以取强)."

13 노자, 제53장: "옷은 화려하고, 날카로운 칼을 허리띠에 차며, 질리도록 마시고 먹고, 재화가 넉넉하다. 이것이 도둑의 자랑이다(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爲盜夸)."

14 노자, 제75장: "民之飢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飢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輕死."

통치자들의 욕심은 백성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커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세금 제도라는 **인위(人爲)**를 사용한다. 인위는 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이나 예절 또는 제도나 규범도 그것이 사람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하려는 바(인위)'이다. 이와 달리 '**무위(無爲)**'는 밤낮이 바뀌듯 봄에 싹이 트듯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한다. 노자는 **성인(聖人)**이 무위로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름드리나무는
털끝같이 작은 것에서 자라났고
아홉 층의 높은 축대는
한줌의 흙에서 비롯됐으며
천릿길은
발아래서 시작된다.

이룬 자는
스러지고
잡은 자는
놓친다.

성인은
이루지 않는 까닭에 스러지지 않고
잡지 않는 까닭에 놓치지 않는다.[15]

우리가 '인위'를 '억지로 이룸'으로, '무위'를 '저절로 이루어짐'으로 새길 수 있다면, 인위에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전제되고, 무위에는 성인이 전제된다. 성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은 점차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 선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아무런 다툼도 전쟁도 억지나 무리도 없는 상태이고, 악은 그와 반대이다. 선은 고요한 상태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저마다의 길을 제때에 가는 생명의 상태이고, 악은 시끄럽고 죽음에로 이끌리는 상태이다. 선은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이지만 악은 그 반대 상태이다. 선은 '하늘의 길' 또는 '저마다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악은 그 길을 스러지게 만들거나 부수는 것이다.

2. 성리학에서 악(惡) 개념

우리는 성리학에서의 악 개념을 『대학(大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학(大學)』은 증자(曾

15 노자, 제64장: "含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

子)가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지은이는 확실치 않다. 『대학(大學)』은 유가(儒家)의 중심 가르침인 "**수기치인(修己治人)**", 뒤쳐 옮기자면, '**닦음과 다스림**'의 원리를 체계화한 책이다. 닦음은 사람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군자의 상태가 되도록 키워 나가는 것을 말하고, 다스림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닦음과 다스림'에는 세 가지 강령과 여덟 가지 조목이 있다. 강령(綱領)은 가르침의 으뜸 내용을 크게 갈라놓은 벼리, 말하자면, '가름-벼리'를 말하고, 조목(條目)은 그렇게 갈라 놓인 가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시 나누어 놓은 갈래, 말하자면, '갈래-고리'를 말한다.

닦음과 다스림을 **세 벼리**로 가름하는 것은 명덕을 밝히는 일(명명덕, 明明德),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신민, 新民), 바람직한 선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지어지선, 止於至善). **명덕(明德)**은 사람이 삶을 밝게 살아가려는 몸가짐을 말한다. 밝고 좋은 삶은 양심에 기초한 실천(實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고, 좋은 마음을 몸소 실제로 이루어나가야 한다. '명덕'은 좋은 마음과 빼어난 몸가짐 그리고 큰 보람을 갖추고자 하는 '밝은 마음'이다. **신민(新民)**은 스스로를 밝은 마음으로 잘 닦은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어 가는 일을 뜻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더렵혀진 옛날 버릇을 잘라내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지어지선(止於至善)**은 사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장 좋은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생각은 옳고 바르고, 행동은 마땅하며, 보람 또한 적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다음으로, '**여덟 갈래-고리**'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격물(格物)**은 세상의 이치나 사물의 이치, 즉 온갖 원리를 바르게 밝혀 나가는 일이고, **치지(致知)**는 앎과 깨달음을 그 끝까지 밀고나가는 일이며, **성의(誠意)**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올곧게, 즉 거짓됨이 없이 다져나가는 일이고, **정심(正心)**은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며, **수신(修身)**은 스스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악을 멀리하고 선을 북돋우는 일이고, **제가(齊家)**는 자신의 집안이나 가문을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치우침이 없도록 고루 이끌어 나가는 일이며, **치국(治國)**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평천하(平天下)**는 모든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두루 조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다.

세 '가름-벼리'와 여덟 '갈래-고리'는 사람이 스스로 배워 나가야 할 바를, **사람이 자라고 어른으로 살아나가는 길들**을 일러 주는 가르침들이다. 사람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세상 속에서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이러한 '더불어-삶'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이때 **도덕(道德)**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과 마땅히 갖춰야 할 바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을 비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고, 그로써 사람의 삶의 울타리를 부수는 사람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대학(大學)』에서 말해지는 **악(惡)**이 <u>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길에서 어긋나거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갖춰야 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그릇되는 것</u>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大學)』의 지은이가 말하는 악(惡)의 졸가리는 '**악은 사람의 본성(本性)을 거스르는 짓이다.**'라는 것이다. 이때 '사람의 본성'은 때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의 따온 말을

보자면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를 일러
사람의 본성에 역행한다고 한다.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이를 것이다.[16]

여기서 "역행(逆行)"이라고 옮긴 "**불(拂)**"은 도리깨와 같은 것으로 몸체에 붙어있는 낱알을 떨어내는 것을 뜻한다. '**인지성(人之性)**', 곧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씨앗 열매이자 뿌리와 같다. 씨앗이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자랄 수도, 자손을 이어갈 수도 없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끝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법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로써 봄여름가을겨울을 갈마들게 하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마음이란 바로 이러한 순리 또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뼈대이고,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닥이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마당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의 한국말은 바탕이다. 사람의 바탕은 몸맘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된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틀**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한다면, 그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와 거꾸로, 그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하고,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사람의 미움이나 사랑을 받는 이가 한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사람의 바탕을 떠나서 행동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집안이나 나라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뜻한다.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게 되거나 다스리는 사람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바탕을 좋게 갖고, 그것을 잘 키워나가면서 그 바탕 틀에 따라 삶의 길이나 다스림의 길을 간다면,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된다.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 게 비록 '사람의 바탕'을 따르는 일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바탕을 대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백성의 무리로 갈음되기도 한다.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17]

백성은 지식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지만, 백성은 사람으로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잘 안다. 백성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아서 그들 자신을 어버이처럼 돌보는 이를 따르게 마련이

---

16 『대학(大學)』, 홍승직 역해, 고려원, 1994, 76쪽: "好人之所惡 惡人之所好 是謂拂人之性 菑必逮夫身)." 앞으로는 "(대학, 00쪽)"으로 적음.

17 대학, 65-66쪽: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고, 백성을 돌보는 이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 베풀고자 한다. 백성이 따른다는 것은 '좋은 정치'의 증거이고, 백성의 떠남은 '나쁜 정치'의 증좌인 것이다. 백성은 나쁘고 좋음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 좋게도 나쁘게도, 달리 말해, 선하게도 악하게도 된다.
그런데 **선행을 베푸는 일**은 사람이 '선한 것'을 모두 다 배워야만 가능한 게 아니다. 처녀는 아들딸을 낳거나 키워 본 적이 없었을지라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절로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바탕만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기르기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18] 더 나아가 사람의 바탕을 잘 갈고 닦는 일은 곧 '**하늘이 시키는 일(천명, 天命)**'과 같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의 바탕'이 튼튼한 사람일 뿐 아니라, 모든 권리의 근원인 하늘의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강고는 말한다. 천명은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선하면 천명을 얻고, 선하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는 말이다.[19]

하늘이 시키는 일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다. 천명은 사람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일 가운데 한 보기는 어버이와 아들딸의 관계 또는 군자(통치자)와 백성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어버이가 아들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하늘의 순리라면, 아들딸이 어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또한 하늘의 순리가 된다. 이러한 관계는 군자와 백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즐겁구나 저 군자는, 백성들의 부모로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이를 일러 백성들의 부모라고 하는 것이다.[20]

군자가 백성의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그 둘 사이가 마치 **천륜(天倫)**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군자는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행복한 것을 좋아하며,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꾸로 백성 또한 군자를 즐거이 따른다. 어버이만이 그 아들딸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듯, 훌륭한 군자만이 **백성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民之所好 民之所惡)을 꿰뚫어 안다. 그런 군자만이 백성의 어버이가 될 수

---

18 대학, 53쪽: "강고에서 말하기를, 갓난아기를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에서 우러나와 정성껏 찾으면, 그 찾은 것이 비록 최선의 것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최선의 것에 그다지 멀지는 않으리니 자식 키우는 것을 미리 배우고 시집가는 사람은 없다(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未有學養子而后 嫁者也)."

19 대학, 70쪽: "康誥曰 惟命 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20 대학, 64쪽: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있다. 군자가 백성의 어버이가 될 때 백성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안겨 있듯, 군자의 나라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백성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삶의 수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놓여 있다. 군자는 백성을 갓난아기로 본다. 오늘날 국민은 갓난아기로부터 백 살 어른까지 다양하다. 군자는 모든 면에서 백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지만 오늘날 국민은 통치자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성리학에서 말해지는 **백성의 의미**는 아래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다.

꾀꼴꾀꼴 꾀꼬리여 초목이 울창한 언덕에 머물러 깃드네.
공자는 말한다.
머물러 깃들임에 있어 [새도] 자기가 머물러 깃들 곳을 아는데,
사람이면서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21]

백성은 자신들이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모를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백성은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줄 군자가 필요하다. 이곳이 곧 백성이 머무르는 곳이다. **군자**가 백성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주고 키워주기 위해서는, 달리 말해, 백성의 좋아하는 것, 즉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바탕'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어버이와 아들딸의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서지 않고도 그 가르침을 나라 전체에 이룰 수 있으니, 효도의 정신은 임금을 섬기는 정신의 근본이요, 형제간 우애의 정신은 윗사람을 섬기는 정신의 근본이요, 부모의 자애의 정신은 대중을 통솔하는 정신의 근본이다.[22]

군자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잘 돌아감이 선(善)이라면, 그것의 막힘이나 끊김 또는 망가짐은 악(惡)이 된다. 아들딸이 어버이를 받들어 섬긴다는 것, 그 관계를 바꿔 말해, 어버이가 그 아들딸을 다사롭게 얼러준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가까운 가운데 저마다의 할 바(효도와 자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서로를 먼저 위하고 보살피며, 서로의 즐거움이 곧 그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 이와 달리 섬김이 무너지고 어름이 그치면, 가족은 남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게 된다. 이것이 곧 '악'이 된다.
선(善)이 비록 관계의 완성을 말하는 한, 그 관계의 항을 이루는 낱낱의 요소들은 바로 그 **관계 자체로부터 저마다의 본성을 부여 받는다**. 보기를 들어 **신하(臣下)의 선**은 용(容)이 된다.

---

21 대학, 26 쪽: "詩云 緡蠻黃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22 대학, 52쪽: "故君子 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진서에서 말하기를 만약 한 신하가 있어 우직하고 성실하며 무슨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럽고 선량하며 남을 포용할 도량이 있을 것 같으면, 남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그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그저 입으로만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진실로 남을 포용할 수 있으리니, 우리 자손과 백성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나라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남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꺼려하고 배척하여 통하지 못하게 하면 진실로 남을 포용할 수 없다. 우리 자손과 백성을 잘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니, 역시 위태롭다 할 것이다(秦誓曰 若有一个臣 斷斷兮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 人之有技 媢疾以惡之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 寔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23]

군자가 '포용력이 있는 신하'를 등용하고, 그 신하가 군자를 효도와 우애로써 섬기면, 그것은 '선한 관계'가 된다. 이때 백성은 절로 잘 보호되고, 나라는 잘 살게 된다. 이와 달리 신하가 포용력이 없어 소통하지도, 관용을 베풀지도 못하면, 그것은 '악한 관계'가 되어 백성과 나라가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선(善)**은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마땅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써 제 할 일을 다할 때 절로 이루어지지만, **악(惡)**은 모두가 사람의 바탕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난다. **선**은 사람의 성품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의 노릇을 제대로 다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기컨대, 문왕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들마다 거기에 알맞은 노릇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선'을 이룬다.

문왕은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어짊의 자리에 머무시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의 자리에 머무시고,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의 자리에 머무시고, 나라 사람들과 사귈 때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셨다.[24]

사람은 그 자신이 놓인 자리가 여럿이듯 그가 해야 할 노릇도 여럿이다. 사람은 그때마다 그 모든 노릇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惡)**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는 것과 같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다른 쪽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결국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게 된다. 이때 그는 벌을 받는다.[25] 군자가 사람들의 벌이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군자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백성 또한 그들이 군자의 사랑을 받을 만할

---

23 대학, 72-74쪽.

24 대학, 28쪽: "**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 止於仁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25 대학, 65쪽: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한 곳으로 치우치면 온 천하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는다(**有國者 不可以不愼** 辟**則爲天下**僇**矣**)."

때 '백성답다.'

'**악(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벌어진다. 악을 막기 위해 성리학은 **수신(修身)의 방법**을 강조한다.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나쁜 행실을 싫어하고, 사람이 누구나 좋은 빛깔을 좋아하듯 좋은 행실을 좋아하는 이치에 따라 스스로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나쁜 냄새를 맡고도 그 냄새가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같고, 좋은 냄새를 맡고도 그것이 나쁜 냄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26] 악은 언제나 사람이 스스로를 속일 때만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을 일러 "작은 사람(소인, 小人)"이라 부를 수 있다.

소인은 홀로 있으면 옳지 않은 일을 행하여 그 옳지 않은 일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가, 군자를 만나면 슬그머니 그 옳지 않은 일을 덮어두고 옳은 일만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그의 폐와 간을 들여다보듯 속을 훤히 보고 있으니, 그런 행실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를 두고 안으로 성실함이 갖추어져 있으면 밖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니 군자는 혼자일 때 신중히 처신한다.[27]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악(惡)**'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로써 그 관계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신의 '할 바(의무, 義務)'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 자신의 불성실(不誠實)로 말미암아 관계 자체가 깨지고, 거기에서 다시금 그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까지를 일컫는다. 이런 의미의 악 개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쉼 없는 '갈고 닦음'을 요청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탕을 가능한 한 크게 키워 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또한 잘 지켜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일은 맡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어떤 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악'은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 때면 언제든 피어난다.

---

26 대학, 39쪽: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也."

27 대학, 40-41쪽: "小人閒居 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 厭然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 然則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 君子必愼其獨也."